

우환(憂患) - 친환경 유리건축

Anxiety - Sustainable Glass Architecture



손기찬 | Sohn, Kee-chan, KIRA
건축사사무소 동이

약력

- 인하대 건축학과, 동 대학원 졸업
- 인하대 건축학부 겸임교수
- 대한민국건축대전 심사위원
-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일전에 행사가 있어 여름방학 중 산뜻한 신관의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냉방 가동이 안 되어 창문을 열어 놓았다. 서향의 거대한 유리벽에서의 작고 시늉만 낸 창은 제구실을 하기에는 세미나실을 온통 찜뚱으로 만들어 참석자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더욱이 발표에 나서, 연단에 서서 내다보이는 활짝 펼친 유리창 밖의 관악산 푸른 경관과 시원한 계곡은 그림의 떡이 되어 필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활짝 열리는 큰 창만 있었더라도 시원한 외부 자연환경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었을 터인데!

여전히 유리질의 투명하고 추상적인 입방체가 최근에는 비대칭 아니면 가분수의 유난스러운 자태로 우리의 도시환경을 불쑥 불쑥 군림하고 나서고 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외모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빠져 있듯이, 우리들의 도시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성형수술 열풍을 앓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외관의 집착에서 오는 폐쇄성은 외부환경과 교감하는 전통적 의미의 창 기능은 물론 무엇이 밖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안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건축 잡지에서 보는 그토록 많은 자극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흔히 접하는 경험일 것이다.

얼마 전 웰빙건축이 아닌 산업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더니, 지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편승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건물마다 모두 친환경 표방 일색이다. 탄소제로 하우스, 제로에너지 주택, 생태건축, 에코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과 에너지관련 신조어의 난무는 이름만 붙인다고 친환경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으로 살리기가 아니라, 친환경자재나 장비를 소비하기에 흠뻑 빠져 있어 보이며, 이제 소박하게 보이기 위해 돈을 펑펑 쓰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막대한 건설 공사비를 쏟아 부은 공공청사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호화청사 논란, 과도한 에너지 사용 논란을 보면, 이게 많은 기획과 회의, 협의 그리고 심의, 감사(監査)의 노력으로 완성되었으리라 믿는 지역의 결과물은 왜 모두 비슷하게 끝이 나고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일상을 소비로 해부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인이 물건의 기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세와 권위, 즉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 또 현대사회는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복제의 시대라면서, 유복한 관리직 간부들이 시

가지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똑같은 과시적 욕구의 반사작용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별장을 지었다. 그렇지만 넓고 통풍이 잘되며 기후가 건강에 좋고 도처에 자연이 존재하는 이 마을에서는 별장만큼 불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좋은 예를 들고 있다.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장되게 표출한 물질적 자긍심은 포장 위주로 흘러, 걸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가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데 만 이용되고 말 것이다. 이는 건축비 투자를 증대시키고, 건축기술의 증진이 건축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설령 첨단-하이테크 건축이라 하더라도 첨단기술은 스타일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건축이 내재되어야 구축 가능한 것이다.

이는 친환경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전부 기술이고 제대로 써야만 하는 돈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상품과 새로운 장비를 갖추게 되면, 또다시 기계와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방식으로도 충족될 수 있을 요구를 에너지 소비를 통해 충족시켜 보려는 부추김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체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내면적 환경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건축설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끝없는 풍요를 추구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국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지어 사용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환경부하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친환경브랜드로 요란하게 포장된 건물이 오히려 엔트로피를 증가하고, 소모적이 되어 우리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예측을 할 수 없고 불편한 병폐가 되고 있다. 사실, 친환경기술이 취약한 우리에게 생활(건축)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삶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결국은 막대한 기업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환경철학자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 Berque)는 에쿠멘(Ecoumen-인간적 거처)은 생태학을 넘어서 윤리적 문제이다(결과적으로 미적, 정치적, 에쿠멘적 등등의 문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에쿠멘, 즉 대지와 인류의 관계는 이처럼 본래부터 윤리적이다 라고 하였다.

산업화이후 우리가 동경하고 꿈꾸며 추구하는 것은 압도적인 물자의 풍부함과 소비방법, 편리함이라는 풍요함속에서 그 여력은 너도나도 생태의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 진정한 환경은 자연환경,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호작용 관계에 입각하여 기술적, 인문적으로 고찰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